

함께 크는 우리 아이

통권 103호
2013. 08



'모래 맛 좀 보라~' (8월 4일 대청소 하던 날)

대구공동육아협동조합 씩씩한 어린이집 / 해바라기 방과후
<http://siksikan.gongdong.or.kr/>

씩씩한 어린이집의 18주년 개원을 축하하며



안이정선 대구공동육아협동조합 창립 조합원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대표)

아이들을 건사하는 밤

실개천과 모래가 있는

넓은 풀밭에 아이들과 강아지 몇 마리를 풀어놓고 가끔 취재어준다.

뜰판에는 꽃들도 좀 뿌려 놓고

깊고 푸른 하늘 아래 햇볕 속에서 이들을 잘 구워준다.

갈색으로 잘 익었으면 시원한 옥조에 던져 넣어 식힌다.



누군가가 익살스럽게 표현해 놓은 것처럼,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신의 아이들이 자연과 더불어 맘껏 뛰놀면서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부닥친 나의 육아 환경은 그런 이상과 한참 멀기만 한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게 사실이다.

대한민국의 맘머느리들이 겪어야 하는 문제에서 비켜갈 수 없었던 나 역시 8년 가까운 터울로 둘째를 낳고 보니 그 애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기까지의 세월이 너무나 까마득하게 느껴졌다. 게다가 둘째를 가졌을 때부터 벌여놓은 일들이 있어 백일이 채 안 된 아기를 안거나 업고서 다니다 보니 어떻게 하면 아이를 좀 떼어놓고 다닐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다.



첫돌이 좀 지나서였다... 처음에는 동네 놀이방에 며칠 동안 아이를 맡겼는데, 다음부터 그쪽으로 가는 골목만 보고도 기겁을 하며 싫어하는 바람에 더 이상 보낼 수가 없었다. 말이 놀이방이지 하루 종일 좁은 방안에 갇혀서 지내야 하는 형편이었으니..... 그 뒤로 이웃의 포레가 있는 집에 맡겨도 보다가, 집으로 파출부를 부르기도 했다가,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절제어린이집에도 보냈다가, 나이가 좀 들어선 유치원에도 다녔다가 하면서 파란만장(?)한 유년기를 보내게 되었다.

그런 중에 아이가 네 돌이 지난 즈음에 오로지 내 욕심으로 대학원공부까지 시작을 하였으니, 지금 생각하면 참 나쁜 엄마였던 셈이다. 대구여성회 회장을 맡으며 주간에 강의를 듣는 대학원까지 다니던 어느 날, 나중에 호호아줌마로 불렸던 김미현 씨가 찾아와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만들어 보자고 하였는데 ‘그거 괜찮은데’ 싶은 마음에 그때부터 겁없이 또 일을 벌이게 되었다.

1994년 9월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막 문을 연 공동육아협동조합 신촌 우리어린이집을 모델로 삼아 관련자료를 모으고, 모여서 공부도 하고, 초청강연회를 열고 등등....이듬해 계명대 대명동 캠퍼스에서 열렸던 ‘야야 모두 나와라’ 어린이날 행사에 아이들과 함께 참가하여 따가운 햇살 아래서 하루를 보내던 기억이 새롭다. 자신의 자녀는 갖지 않으면서 산동네 아이들의 공부방 운동을 해오다가 공동육아연구회를 만드신 한양대 정병호 교수님 부부를 대구에 모시고 강연을 들으며 공동육아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기도 하였다.

그 뒤 씩씩한 어린이집의 소식지 제목이 된 “함께 크는 우리 아이”야말로 그 당시 우리가 공유하고 추구하였던 이념이 아니었나 싶다. 맨날 모여 머리를 맞대고 회의하고 준비하며 부모인 우리들이 많이 배우고 성장한 시기이기도 하였다.

조합원들을 모아 출자금을 마련한 뒤 마당 딸린 이층집 일반주택을 세내어 어린이집에 필요한 기본적인 리모델링을 하고(이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난간 달기, 연령별로 방꾸미기, 장난감 구비, 수납장 마련, 마당에 모래밭 만들기 등) 대청소와 페인트칠은 부모들이 모여 직접 노력봉사로 해결하였다.



드디어 1995년 8월에 문을 열게 된 썩썩한 어린이집!! 교사도 우리가 공고내어 면접을 거쳐 우리가 직접 뽑고, 아이들 간식은 생활협동조합인 한살림에서 공급을 받기로 하고, 오전에는 근처의 썩썩한 산(아이들이 붙인 이름으로 남부정류장 뒷산)으로 나들이를 가고, 아마(아빠엄마의 준말)제도로 부모들의 자원봉사와 참여를 늘리고... 그때 우리가 시작한 작은 시도가 18년의 역사를 이어오며 지금도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워내고 있다니, 참으로 감개가 무량하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시지 쪽으로 땅을 구하고 집을 지어 이사를 하고 방과 후 프로그램인 해바라기를 잘 운영하고 있는 후배 젊은 조합원들을 보면서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이 저질러질 지 솔직히 기대가 되기도 한다.

썩썩한 산으로 동생들 손을 잡고 나들이를 열심히 다니며 곤충학자가 되는 게 꿈이라던 우리 집 둘째는 이듬해에 첫 졸업생이 되어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 지금은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3D 전문가를 꿈꾸는 25살의 청년이 되었다. 서울대에서 건축학을 전공하는 기원이, 한예종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하는 지연이를 비롯하여 조훈이, 서영이, 희철이, 한슬이가 지금은 모두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다고 한다.

그때 함께 땀흘리며 개원을 준비하였던 교사들(교직에 계셨던 엄마들)은 지금도 현직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한슬이가 너무 어려 아직 어린이집에 다니기도 전부터 조합에 동참하여 원장을 맡아주셨던 신남희 씨는 수성구 용학도서관의 관장을 거쳐 지금은 다시 새빛도서관의 관장으로 복귀해 계신다.

아이를 아이답게 키우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요즘, 눈밖은 부모들이 썩썩한 어린이집을 찾고 근처로 이사까지 와서 조합원이 되고 싶어 대기하고 있는 건 어찌면 당연한 현상이 아닐까 싶으면서도, 그런 부모를 만나지 못한 수많은 아이들을 생각하면 한국의 육아와 교육현실이 참 가슴 아프다. 아이들은 나라의 기둥, 미래의 희망이라고 말만 할 게 아니라 조합을 통해 함께 크는 우리 아이는 대한민국 교육정책의 기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마을 공동체 속에서 살고 싶습니다.

김성수 씩씩한 김윤아, 소현아빠

올해의 화두는 당연 마을입니다.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만들고 시민들에게 자기 동네에서 공동체라는 색깔을 입힐 것을 주문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구도 만촌동에서 아주 이상한 마을공동체를 ‘해피타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요.

물론, 여기 조합에서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수차례 진행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처음으로 마을 이야기를 들은 곳은 아빠모임에서였어요. 아름다운 골목만들기 추진위원회, 사랑방 추진위원회, 등등의 위원장이 소개되고 각자 위원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모습을 열심히 설명되어지고 있고, 듣는 아빠들의 표정도 사뭇 진지하게 고민하는 표정이 가득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을, 많은 사람들이 예전부터 몇몇은 올해부터 진지하게 마을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만들어보고자 하지만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니,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협의와 동의가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머리에선 이런 게 마을공동체라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 마을 공동체는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누가 대상이 되어야 되며 어떻게 동네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제가 재미있어할 끼리를 동네에서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다른 동네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그 처음의 시작부터 자세하게 듣고 빼껴보기도 했습니다.

성미산공동체에 만든 영화 ‘춤추는 숲’을 열심히 봤습니다. 영화 내내 가슴이 막막해오는 것은 저 유명한 성미산공동체가 그냥 도깨비 방망이로 똑딱 만들어진 마을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고 꾸렸던 성미산과 기억의 공간을 지키고자하는 의지와 열정이 그들을 훌륭한 마을지기로 만들었고 마을을 만들었는 것 같아요.

포크레인이 지나간 자리에 자기가 오래전에 심은 나무의 흉물스럽게 나온 뿌리에 흙을 조심스럽게 뿌리고 있는 아이의 ‘아무도 생명을 소유할 수 없어요, 돈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는게 너무 속상해요’ 하소연에 어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말이 마을 공동체의 의미와 역할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넵더유, 넵더유~~’그렇게 그들은 마을을 누구에게도 간섭당하지 않고 멋진 공동체를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공동체, 정말 만들고 싶어요. 아니, 그런 마을 공동체 속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름도 벌써 정해져 있어요. 천을산 마을공동체. 그런데 우리는 마을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지 몰라서 우왕좌왕 합니다. 하지만 우린 벌써 마을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진 않지만 우리들만의 공동체가 있지 않나요? 매주 축구도 하고, 밴드도 만들어서 연습을 하고, 동네에서 만나 술 자리를 하던가 아니면 집집마다 여러 가족이 모여 저녁을 해결하고 있지요.

그런데 마을공동체라는 것을 만들려고 생각하니 이것보다는 더 거창하고 더 형식이 있고, 더 무언가가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대부분의 마을공동체가 몇몇 동네 사람들의 의기투합으로 시작했던 것을 상기해보면 어쩌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마을에 반찬가게도 만들고 싶고, 사랑방 같은 카페도 있었으면 좋겠고, 마을 골목 구석구석에 한 달에 한번 장터도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합원뿐만 아니라 동네 거주하는 다수의 사람들과 아침, 저녁으로 인사하면서 안부를 물을 수 있는 마을이었으면 좋겠어요.

마을을 생각하면서 고향을 생각합니다. 물론 이곳이 이제 윤아와 소현이의 고향이고 저와 아내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천을산을 중심으로 한 이 동네에서 그런 상상들이 실현되는 마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5월부터 마을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준비와 내용은 소정아빠(졸업한 조합원)가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와 강연을 듣거나 토론하는 형태로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마을공동체가 무엇인냐고 물으면 솔직히 모르겠어요. 다만, 나와 우리가족의 고향인 것은 분명하구요. 또한 마을공동체는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모여 함께 재미있는 끼리를 고민해야만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으면 합니다.

오늘도 천을산 마을공동체 ‘재미마중’(재미있는 마을을 만드는 중)에서는 마을을 함께 생각하고 행동할 주민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카페에 놀러오세요. <http://cafe.daum.net/jaemimajung>



7월 26일, 씩씩한 교육아마 후기

이효진 씩씩한 태오엄마

7월 26일, 아마활동표 빈칸에 권태오 이름 석 자를 적은 날.
내가 교육아마를 하는 날.

그리고, 내 별명이 생기는 날. ^^

교사가 한 명도 없는데 아이들 하루 흐름을 놓치지 않는을까, 아이들이 과연 내 말을 잘 들어줄까, 낮잠은 과연 몇 명이나 잘까 등등의 걱정이 들면서 내 별명이 무엇으로 정해질까 불안했다. 그 놈의 별명이 무엇인지 모 아마의 말씀대로 아침부터 렌즈 끼고, 화장하다 보니 어느덧 터전에 갈 시간.



태오 손을 잡고 터전에 도착하니 초록사과, 달님, 무지개 물고기, 돌고래, 구름이 차례로 보이고 아이들은 이곳저곳에서 자유놀이를 하는 중이었다. 태오는 가자마자 블록놀이하고 나는 딱히 할 일이 없어 가만히 앉아 있자니... 10시도 안 됐는데 돌고래가 아침열기를 하잔다. 누군가에게 노래를 부탁하니 그 아이가 노래를 시작하고 아이들이 이곳저곳에서 노래를 같이 부르며 1/3 쯤 모여 앉고 다른 아마들이 안 앉는 아이들 앉히고, 이미 앉아 있는 아이들이 그 나머지 아이들을 앉혀 아침 열기가 시작되었다.

어제에 이어 아마들이 터전에왔다는 것을 알리고 내 별명을 짓는데 역시나... 처음에는 후라이팬, 변기통 같은 얼토당토 않은 후보들이 나오다 돌고래의 중재가 들어가니 보석, 다이아몬드, 꽃다발 같은 적당한 후보들이 나왔다. 해서 정해진 내 별명은 꽃다발.^^ 터전 아마들이 웬만한 꽃 이름은 다 차지하고 있어서 꽃 별명은 못 지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아주 마음에 든다.

영윤아~고마워♡

별명을 결정하고 오전 나들이는 천을산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자꾸 모래 놀이터로 새는 아이들을 챙겨 인원점검 후 산 나들이 출발~. 한 손에는 태오, 다른 한 손에는 4세 민주 손을 잡고 나들이를 시작했다. 폭포길에서 대형 거미를 발견하고 아이들이 모여 들어 구경을 하는데 아이들이 "꽃다발"하며 나를 부른다. 별명 정할 때 잘 안 듣는 것 같더니 그렇지도 않았나 보다.

준서는 꽃다발하며 강아지풀을 여러 개 꺾어 주고(꽃다발은 여러 개여야 한다며 ^^) 조금 더 가서는 꽃도 꺾어준다. 그걸 본 태오도 질세라 꽃을 꺾어 준다. 흐뭇한 기분으로 연못가에서 물 한잔 마시고 산딸기 언덕을 지나 기차산에 올랐다. 기차산에서 시원한 바람 맞으며 나무 울타리에 매달려 기차 구경하고, 벤치에서 나뭇잎 퐁퐁 찢어 소꿉놀이하고 놀다 정상까지 이동~.

기차산에서 정상까지는 길이 가팔라서 잘 따라오던 민주도 정상 가까이 와서는 힘들다고 하고 태오도 같이 힘들다며 꼭 잡은 손을 놓을 생각이 없다. 더운 날씨 덕에 가지고 온 물은 바닥나고, 아이들은 물을 찾고. 터전 가서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오미자 아이스크림 먹자는 말로 아이들을 달래서 증심사쪽으로 내려왔다. 뒤에 오던 구름과 무지개 물고기가 길을 잃고 다른 쪽으로 내려갔다고 한다. 헐... 어쩐지 한참 안 보이더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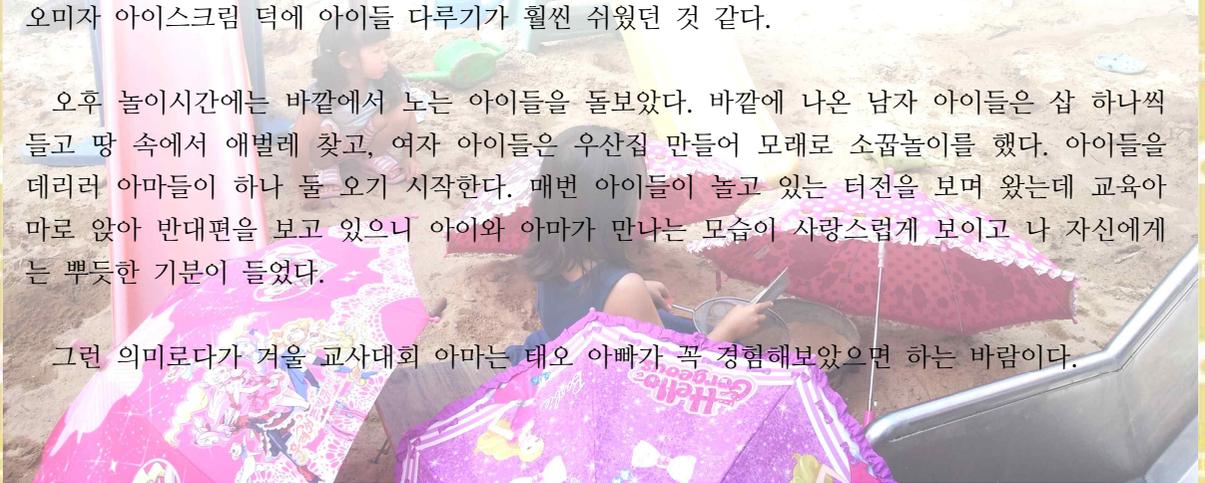
다행히 터전에 태권브이가 와 있어서 천을산 저 너메로 넘어간 아마들과 아이들을 데려다 주셨다. 그리하여 1시쯤에서야 점심을 먹고, 2시 넘어 낮잠 재울 준비를 했다. 산 나들이 갔다 왔으니 잘 자겠지 했는데, 웬걸? 잘 안 잔다. 한 명도 골아 떨어지는 아이가 없다. 체력도 좋지. 난 어서 애들 재우고 커피 한잔 하고 싶은데...

벚꽃이 몸쉬기 시간에 책을 읽어준다는 그 자리에서 책을 3권이나 읽어줬는데도 분위기는 오히려 어수선하고 책 내용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느라 바쁘다. 결국 눈 감고 말 안 하고 조용히 몸쉬기 하자고 초록사과가 이야기하고 나가고, 엄마 있다고 그러는지 원래 그러는지 끊임없이 장난치고 킬킬 웃는 태오를 앉아 재우고 나니 3시쯤에서야 대부분 잠이 들었다.

살그머니 빠져나와 주방에서 먹는 아이스크림이 얼마나 달콤하던지... 달콤한 시간을 쏙살같이 지나가고 아이들이 하나 둘 깨서 놀이를 시작하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잤는데도 계속 자는 아이들을 깨워주고 이불정리하고 나니 오후 간식 시간. 삶은 감자를 다 먹어야 오미자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다는 초록 사과의 작전 덕에 간식을 수월하게 먹고 약속한 오미자 아이스크림도 차례대로 나눠주었다. 오미자물을 아이스크림통에 얼린 것 뿐인데 얼마나 맛있게들 먹는지. 오늘은 오미자 아이스크림 덕에 아이들 다루기가 훨씬 쉬웠던 것 같다.

오후 놀이시간에는 바깥에서 노는 아이들을 돌보았다. 바깥에 나온 남자 아이들은 삼 하나씩 들고 땅 속에서 애벌레 찾고, 여자 아이들은 우산집 만들어 모래로 소꿉놀이를 했다. 아이들을 데리러 아마들이 하나 둘 오기 시작한다. 매번 아이들이 놀고 있는 터전을 보며 왔는데 교육아마로 앉아 반대편을 보고 있으니 아이와 아가가 만나는 모습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나 자신에게는 뿌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런 의미로다가 겨울 교사대회 아마는 태오 아빠가 꼭 경험해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마요? 나는 이래요!

이현영 해바라기 문환주, 씩씩한 문송주 엄마

에피소드 #1

간식메뉴 - 떡볶이. 아마 4일차

어제 간식을 다 만들고 내일(그러니까 오늘 만들) 메뉴를 보니 떡볶이다. 떡이랑 필요한 재료들 생각하며 냉장고를 뒤져보니,

‘어! 떡이 없네. 내일 오면서 사와야겠군...’

(내일이 되어)간식 만들러 오는 길에 떡집에 들렀다. 집 근처에 가니 두 팩밖에 없단다. 그래서 동네를 돌면서 세군데 떡집에 들러 떡볶이떡 6팩 구입. 티전에 도착해서 냉장고를 열어보니 자연드림 떡볶이 떡 4팩이 자리를 잡고 편히 누워 있다.

‘어~~ 포도선생님~~~’

이래저래 물어보니 그 전에 생협에서 공급 받았던 걸 냉동실에 넣어 두셨다가 오늘 간식 재료라서 꺼내 두셨다고...

‘내가 냉동실 볼 때는 왜 안보였냐고.. 아이고.... 이 떡들을 우째...’

하는 수 없이 내가 사온 떡들은 냉동실에 넣고 공급받았던 떡 4봉지로 떡볶이 만들기 시작. 야채 썰고 떡볶이 떡 살짝 데쳐내고 준비하던 중, 환주할아버지께서 검진 차 들르신 병원에 가볼 일이 생겨버렸다.

‘어떡하지?? 음.... 수배해야지...’

‘오늘 해바라기 간식 대신 만들어 주실 분...’

카톡 날려도 답이 없다. 답답한 마음에 은준모에게 전화.

‘좀 도와줘요..’

‘시간은 되는데 능력이 안되서..’

‘누구 연락해서 같이 오면 안될까??’ 했더니

‘윤아엄마한테 연락해서 갈게~~~’

떡볶이 소스를 만들고 있으니 잠시 뒤 은준모, 윤아모 도착.

‘요거 만들어 냈는데 매울지 안 매울지 모르겠어요. 그냥 압튼 넣고 해줘요. 부족하면 알아서 더 만들고...’ 그리고선 급하게 썩 나왔다.

다음 날. 간식하러 도착해서 냉장고에서 재료를 찾는데,

‘어라?? 또 있네..’

자연드림 떡볶이떡 2팩과 어묵 4봉지가 또 편히 자리 잡고 누워 있다.

‘으...뭘야.. 어제는 왜 안보이고 오늘 또 보이는 거야.. 아이 몰라... 흑!!’

떡볶이 간식을 먹고 난 다음날인데 떡 8팩, 어묵 4봉지가 고스란히 남았다.

잠시 후 아이들에게 물어보니 아~~~주 맛있는 떡볶이였고 맵지도 않아서 아이들이 더 달라고 했다는데 양이 모자랐다고 한다. 당연지사. 떡 2팩과 어묵 4팩을 더 넣고 만들어 줘야 하는데 떡 4팩만 했으니 모자라지...

‘미안하다 애들아. 하지만 나의 이런 덜렁거림을 너희들에게는 알릴 수 없으니 그냥 니들은 너무 맛있어서 더 먹고 싶었던 것으로 생각하기 바래...’

덕분에 고생한 선생님들과 은준모, 윤아모도께 감사^^

후에 저 재료들은 궁중떡볶이로 변신하여 아이들 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에피소드 #2

간식메뉴 - 유부초밥, 아마 1주일+2일차

유부초밥은 간단하쥐! 일단 밥 해 놓고 자연드림 유부는 가운데 부분 칼집내서 직접 찢어줘야 하니 밥 하는 동안 찢으면 되고~~

그런데 유부가 좀 많네.. 물어보니 아이당 5개씩이란다. 30명 기준이면 150개. ‘헉. 완전 많은 데~~’ 이 때부터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부지런히 만들기 시작했다. 양손에 위생장갑 끼고 하면 밥알도 달라붙지 않고 잘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다. 그냥 하는 수밖에... 맨손으로 유부에 열심히 밥을 집어 넣었다.

간식 나가기 20분 전. 나들이 갔던 루비샘이 아이들과 돌아왔다.

‘루비~~ 나 좀 도와줘요.. 다 못 할 것 같아요~ 애들 너무 많이 먹는거 아니에요?? 나 손 떨려요~~ ㅎㅎ’

그래서 둘이 만들기 시작. 루비샘 역시 위생장갑을 찾지 못해서 맨손으로 작업했다.

간식 나가기 10분 전.

‘포도 선생님~~ 시간에 못 맞출 것 같아요.. 만들어진 것부터 먼저 나가고 계속 만들어서 낼게요...’

‘아이고... 왜 이리 늦으셔~~’하면서 주방에 들어오셔서 도와주러 오신다.

‘어? 장갑 어디서 찾으셨어요??’ 루비샘이랑 나랑 둘이서 놀라며 물어본다.

아무리 찾아도 없던 위생장갑이 포도샘 손에는 끼여져 있다. 순간 맥이 탁 풀리는 기분이란.....

‘헐~~ 뒤늦게 장갑은 꺼서 뭐하리~~’

그냥 셋이서 주구장창 열심히 만들어 조금 늦게 유부초밥을 먹었다.

맺는말 #3

내가 38번째로 맞이하는 2013년 한해. 올해 나의 테마는 가족이다.

나는 올 한해를 우리집 문씨 3명에게 투자하는, 특히 학교에 입학하는 환주에게 집중하는 한 해로 보내겠다고 다짐했었다. 그래서 고산초등학교 1학년 5반 반대표도 하고 있다.(학교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직접 경험으로 알아보겠다는 요량도 있지만 말이다.)

우선 가정에서의 내 역할에(그냥 살림살이다) 충실하고, 문씨 3명이 가정 이외의 곳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충만된 기운을 주는 것이 기본이다. 그런 면에서 터전에서의 활동도 열심히 해보자하고 마음먹었다. 이래저래 빈 곳이 생기면 채워주자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올해 터전생활에 임했다고나 할까~~

그래서 덜컥 한다고 해버렸다. 해바라기 주방아마.

달고나 선생님께서 그만 두시고 후임을 구하는 동안 땀뻘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냥 땀뻘한다 생각했다. 애들이 얼마큼 먹는지도 몰랐었고, 구체적으로 어떤 메뉴를 먹는지도 몰랐었으니까.

밥도 아니고 간식, 게다가 메뉴를 보니 빵도 있고 삶은 감자도 있다. 빵이야 포장되어 오는 빵 봉지를 뜯어 접시에 담아내면 그만이고, 삶은감자야 껍질 깎아 물 넣고 가스불에 올리면 그만이다. 근데 하루, 이틀하고 사흘, 나흘 계속하니 힘...들...더...라.....

나라는 사람은 ‘하면 되지 뭐....’ 하는 태도로 무슨 일든 대하는 사람이라 주방아마도 그렇게 시작했다. 진짜 하면 되긴 됐다. 함께 계셨던 해바라기 교사들 입장에서는 ‘뭐 저래~?’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냥 ‘이 정도면 됐다..’ 하는 태도를 유지하려고 애썼다. 애들에게도 일일이 ‘내가 주방에 있으니 어떡냐’고 물어보지 않았다. 그래도 틈틈이 신경써야 하는 부분들 때문에 잠시잡깐 스트레스라는 말을 떠올리기도 했었지만... 다~~~~~ 끝난 지금 생각해 봐도 겁없이 해대기를 잘했다고 스스로 결론을 내린다.

자고로 사람이란 본인의 안전을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동물인지라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주변의 반응이 어떨까에 대해 생각해보기 마련이고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때문에 행동이나 태도가 위축되는 것이 당연지사다.

그렇지만 한 번 살아가는 인생 일단 해보자는 마음이면 뭐든지 쉽게 열리는 길인 것이 또한 인생인 것 같다. 설혹 잘못했으면 잘못 했구나 반성하면 되고, 잘했으면 잘했구나 하고 스스로를 토닥여주면 되니까.... 이처럼 쿨 한 인생을 살고 싶은 나이기에 쿨 하게 행동하려 애쓴다.

아무튼 이런저런 생각들 다 집어치우고 7월 3주간에 걸쳐 해바라기 주방아마를 다 끝난 지금 나는 나를 칭찬해주고 있다. 밖에서 보고 생각하는 것보다 직접 함께하고 느끼는 것이 역시 낫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그 안에 직접 들어가 보면 알게 된다. 알고 싶지 않았던 부분까지도 덤으로 알게 된다.

우리가 궁금한 것을 뭉뚱그려 구석에 넣어두지 말고 바깥으로 끄집어 내어 펼쳐내 보자. 그런 의미에서 터전에서서의 아마 활동도 내 인생을 확장시켜 준다 할 수 있겠다 싶다. 타인에게 100번 물어봤자 타인의 의견일 수 밖에 없는 법. 한 번 경험으로 알아보는 것이 내가 진정으로 안 것이 된다.

터전에서 아마를 하면 좋은 점 여러 가지가 있다. 요건 아마를 해 본 사람만 알 것이다. 물론 경험치에 따라 각자 다르게 느끼긴 하겠지만 일단은 아이들 관계가 눈에 보여 좋다. 또 교사와 아이들의 관계가 보인다. 이에 덧붙여 다른 아마와의 관계도 새롭게 형성될 수 있다. 이 외에 좀 더 중요한 좋은 점들은 여기에 적고 싶지 않다. 누군가 묻는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다. '직접 해보세요. 그리고 만나서 나눠봅시다.~'



끊이지 않던 수다다다!!!

항성원 씩씩한 이루다 엄마

방학과 더위의 정점을 찍던 7월 31일, 벅르고 벅르던 마실이 성사되었다. 평소에 마주앉아 이야기 나눌 기회가 거의 없었던 물방울 소정엄마와 대단한 에너지를 지닌 별똥별 승우엄마.

이렇게 매력있는 두 엄마와 음악인 소정서연아빠, 그리고 애 일곱! 이 더위에 점심을 어떻게 해결하고, 애들을 따돌리고 수다를 떨 수 있을까? 으흐흐~ 한번 부딪혀보자!



시지에서 멀고도 먼 동네, 봉무동 새들마을까지 오시게 하는 것도 미안한 일이다. 하!지!만!

우짜겠노? 승우는 이미 루다집에 오고싶어하는 걸~ㅎㅎ 준비한 메뉴는 월남쌈과 김치찜.

월남쌈을 먹고 저녁으로 김치찜을 먹을까? 아님 점심에 김치찜을 먹고 저녁에 간단히 월남쌈을 먹을까? 고민했건만 결론은 점심에 월남쌈먹고 김치찜먹는 걸로! ㅋㅋ

흔들리면서 서로서로 자기 중심을 잡아가는 것 같아

소정서연모_ 혜준엄마, 피아노 학원 한달에 얼마해요?

혜승혜준승우모_ 9만원, 바이엘은...

혜승혜준승우모_ 혜준이가 올해부터 학원을 가잖아요. 내가 볼 때 인간관계 맺는데 한계가 있는 듯해요. 해바라기는 한 공간에서 오래 머물러 있으나 학원은 그냥... 레슨할 때만 만나다 보니 친구맺기가 어려워.

루다모_ 혜준이는 언제부터 씩씩한 다녔어요?

혜승혜준승우모_ 4살.

루다모_ 거기에 젖어있다 이젠 새로운 환경일텐데... 루다도 해바라기까지 쪽~ 보낼지 어떨지... 만약 안보낸다면 새로운 관계를 맺기까지 시간이며 다른 뉘들도 다시 새로 애를 써야할 것 같은 거야.

소정서연모_ 이번에 1학년들 생일초대에 엄마들까지 다 초대했대요.

루다모_ 진짜?

소정서연모_ 아무래도 그런데서 얼굴을 익히고 친목을 도모해야 관계를 만드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면에서 조금 덜 아쉬운 듯 해요.

혜승혜준승우모_ 맞아요. 덜 아쉬워요.

소정서연모_ 만약 해바라기에 안보낸다면 나라도 그런 학교모임에 꼭 참여를 해야할 것 같아요. 안그러면 밖으로 길돌꺼니까...

혜승혜준승우모_ 처음 학년바뀌면 엄마들 밥먹잖아, 또 청소할 때 만나면 차 마시면서 “그래 소정이 어디 보내요?” 이렇게 물어보면 줄줄 만나와~ ㅎㅎㅎ. 아예~ 그냥 뭐...이러지. 고산초에는 군인가족이 많아서 집에 있는 엄마들이 많다보니, 학구열, 학원열이 끝내주더라. 보통 3~4개 학원을 돌리고 아이들이 8시에 귀가한다더라. 영어, 피아노학원 등등...미술학원? 미술학원은 벌써 진즉에 끝냈어야지, 무슨 미술을 3학년까지 하나면서...지금 영어하고 할 게 얼마나 많은데~라면서...

루다모_ 하하하하 판 세상이네~

혜승혜준승우모_ 어~ 나는 완전 꺾다놓은 보릿자루처럼! 숙제는 어떻게 해요?하고 물어보니, 늦게 귀가해 올면서 한대, 그래서, 쌤들도 숙제를 안 내주는 편이고, 근데, 올 혜준이는 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보니 맨날 야~호한다. 그 학부형들과 친밀감을 쌓고 싶어도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그 사람들도 나같은 사람을 부르지도 않겠거니와 너무 다른 세계 사람들인 같더라. 공동육아에 3-4년 넘게 물들다보니... 루다엄마도 만약 그만둔다고 해도 아마 그럴걸요. 그냥 내 수준에 맞게 자연스럽게 가고 싶지...

루다모_ 그런 분위기를 알면서도 혜준이에 대해 불안하진 않아요? 음.. 가끔 ‘애한테 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막고있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아요?

혜승혜준승우모_ 나도 그렇고 내 위의 선배엄마들도 그렇고, 굳건해서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야. 흔들리면서 서로서로 자기 중심을 잡는 것 같아. 근데 그 중심은 다 달라. 나같은 경우는 판 건 안 흔들리고 교과서 성적 점수보다는 아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루다모_ 엄마가 좀 더 에너지를 쏟아야하지 않나하고 고민하진 않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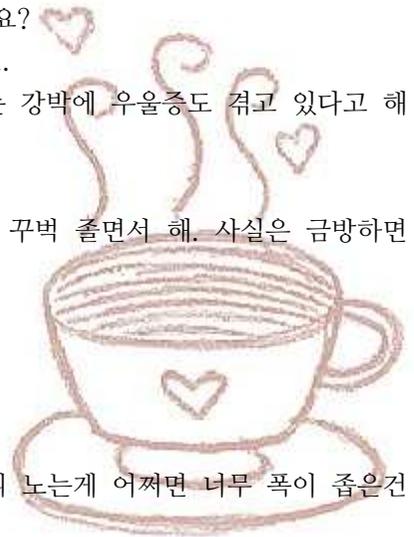
혜승혜준승우모_ 문제집을 사거나 학습동기를 꾸준히 유발해야 하지..

소정서연모_ 초4학년을 둔 내 친구는 늘 애를 공부를 시켜야 한다는 강박에 우울증도 겪고 있다고 해요.

루다모_ 초등학생인데?...어떻게....

혜승혜준승우모_ 나는 많이 시키지도 않는데 숙제하다보면 10시야. 꾸벅 졸면서 해. 사실은 금방하면 될 숙제를 하기 싫어 끄적이다 보니...아휴~~

(애들 들을까봐...첫째는 어찌고~~둘째는 어찌고~~소곤소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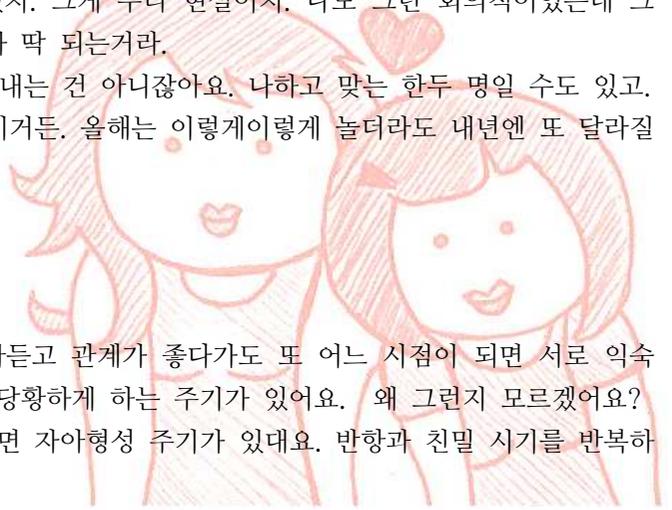
소정서연모_ 방과후에 한 학기 보내면서 가끔은 아, 이렇게 지들끼리 노는게 어찌면 너무 폭이 좁은건 아닌가싶을 때도 있어요.‘

혜승혜준승우모_ 나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난번 어느 강연에서 너무 명쾌한 답을 하는 거야. 강사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물었어. 4세부터 12세까지 10년 가까이, 30여명이 그대로 계속 만나니까 너무 폭좁은 인간관계가 아닌가? 그 강사가 우리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어. 그래서 하루일과가 이렇게저렇게 되고, 어린이집에서는 이렇게 놀았고, 방과후는 학교마치면 이렇게저렇게 설명을 했더니 강사가 아니, 그 정도로 친밀한 애들이 20명이 넘는데 그게 모자란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되묻는거야.

혜승혜준승우모 뭐냐면 혜준이 학원보내면서 생각해보니까 단 5명이라도, 3명이라도 이렇게 같이 크고 깊은 관계를 맺는다면 나중에 커서 아이들이 다시 만났을 때, 예를 들어 발레학원 아이들이 다시 만난다면 그냥 누구동생 누구 알지? 정도일꺼란 말이야. 근데 만약 혜승이가 루다를 다시 만난다면 니 그때 꼬맹이 누가? 이러면서 반가와하겠지. 그게 우리 현실이지. 나도 그런 회의적이었는데 그 강사가 되게 명확하게 얘기하니까 나도 정리가 딱 되는거라.

소정서연모 근데 해바라기라도 다 친밀하게 지내는 건 아니잖아요. 나하고 맞는 한두 명일 수도 있고.

혜승혜준승우모 그렇지. 근데 그 관계가 움직이거든. 올해는 이렇게이렇게 늘더라도 내년엔 또 달라질 수 있다는거지.



딸 키우기 너무 힘들어~

루다모 루다는 내가 하는 말을 비교적 잘 알아듣고 관계가 좋다가도 또 어느 시점이 되면 서로 익숙하던 타협이나 합의점에 완전 판지를 걸면서 당황하게 하는 주기가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소정모 1~2년 주기로 그렇지 않아요? 책에 보면 자아형성 주기가 있대요. 반항과 친밀 시기를 반복하며 성장한다고 해요.

루다모 최근 또 얼마 전부터 그래요. 그 시기가 제가 느낄 땐 좀 명확하게 구분될 정도예요. 전 사춘기에갈단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운전 중에 차 안에서 그림을 그리다가도 “엄마가 운전을 빨리해서 엄마땀에 그림을 망쳤잖아!” 이렇다. 마치 꼬투리 찾던 애처럼.

소정서연모 / 혜승혜준승우모 사춘기 애들처럼 “엄마땀에~~”를 남발하는구나.

루다모 그러던 어느 날 외출준비를 하다가 내가 루다한테 소리를 질렀나봐, 나도 쌓였던지...ㅎㅎ 뒤 에 루다아빠가 그런 분위기가 너무 싸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난 의식 못했는데 루다아빠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 내가 너무 했나? 싶더라고. 그러거나말거나 루다는 또 차안에서 그림그리다 엄마땀에....또 시작하는거야. 그래서 화를 내는 대신에 정말 큰 맘먹고 계속 말을 들어주고 또 설명해줬지. 그 일 후에 다시 차에서 “엄마~ 내가 자꾸 짜증내서 미안해!”하는 거야. 그 때 느꼈지. 스스로 “미안하다”고 말하는 걸로 봐서는 어찌면 루다 지도 지 감정을 어쩔 수 없어하는구나...알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은 루다를 정말 어른처럼 대하려고 하지, 지가 안된다는 표현을 할 땐 지도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싶고... 그러니 조금 편해지는거야. 딸 키우는 거 너무 힘들어~

혜승혜준승우모 우리 집의 경우는 내가 “혜승아~~”하고 3번째 더 부르려고 하면 남편이 벌써 혜승이에게 빨리 대답 안한다고 잔소리를 하고 있어.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내게도 그런 모습은 스트레스야. 남편은 내가 화를 낼게 뻔한 상황이라 대신 자기가 잔소리로 막았다고 말해.

소정모 아내를 위해서 한다는 게 그러네..

혜승혜준승우모 다혜엄마가 나보고 길대, 애한테 야단칠 때 설명하고 부연설명하고 마무리 똑같은 얘기를 3번 한다는 거야. 길어! 길어! 옆에서 누군가 그렇게 얘길 해주니, 조심하게 되더라고.

루다모 그래~그런게 도움 되지.

혜승혜준승우모 1차로 장난감 치워!, 2차 엄마가 힘들잖아! 3차 너! 또~ 저번에도...하며 소리 지르게 돼. ㅋㅋㅋ 나도 약간은 내감정이 엮이거나 화풀이식으로 할 때가 있어.

혜승혜준승우모 객관적인 3자가 얘길 해주니 알겠더라고. ㅎㅎㅎ

(혜승혜준승우모 전화중_ 집에 벌써 와 있어? 5신데!~ 여기 루다네야~ 팔공산 밑 봉무동인데 여기 밭에 호랑이 나온대. 근데 웃기는 건 루다모가 늑대도 우굴거린단다. 호랑이랑 늑대랑ㅋㅋㅋ....)

장난감은 계속 빵빵빵~ 수다도 계속 다다다!

점점 더 이상 발 디딜 곳 없어지고 있는 루다네의 거실과 베란다. 안방 또다른 방...

소정서연부_ (보다 못한) 루다야, 니 장난감 진짜 많네ㅎㅎㅎ

루다모_ 이거요? 다 쪼가리쪼가리 완성품이 없어요. 거의 얻은 거라...

소정서연부_ 인형도 진짜 많네.

혜승혜준승우모_ 승우 빨리 크고 나면 저 장난감 줘!

소정서연모_ 응, 나도! 서연이 좀 크고 나면...

혜승혜준승우모_ 하랑이네는 이사가고 난 다음에 하민이가 그 많던 장난감 짝 다 정리하고 거실에 소파와 테이블과 TV와 그 여백의 미 있잖아! 하여간 거실에 이렇게 퍼질러놓진 않는거라. 엄청 부럽고! 40평대 비슷한 시기에 이사했는데 우리 집은 별로 깔끔하지도 않고....블럭하고 레고 청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난 꼭 로봇청소기 살 거야.

루다모_ 나도나도!

(수다 중에 실새없이 복숭아죽는 소정서연모)

혜승혜준승우모_소정엄마 복숭아썰기 바쁘다. 접시에 복숭아 있는 꼴을 못 봤다.아하하~

루다모_ 응, 계속 깎고 있었다ㅎㅎ. 우리 천도복숭아도 먹자. 이거 안깎아도 되는데...

승우_ 난 그냥 먹을 거야!

루다_ 난 잘라서!

소정_ 저도 잘라서 주세요.

혜준_ 루다는 외동이라서 참 힘들겠다. 놀 사람도 없고...

혜승_ 루다는 한명밖에 없어서 놀기 심심하겠다.

승우_ 장난감은 천진데 사람은 혼자야!

수하_ 안승우, 좀 비켜, 안승우 비키라고, 나 지나갈꺼라고! 안승우가 안비켜!!!

혜승혜준승우모_ 승우야, 이리 온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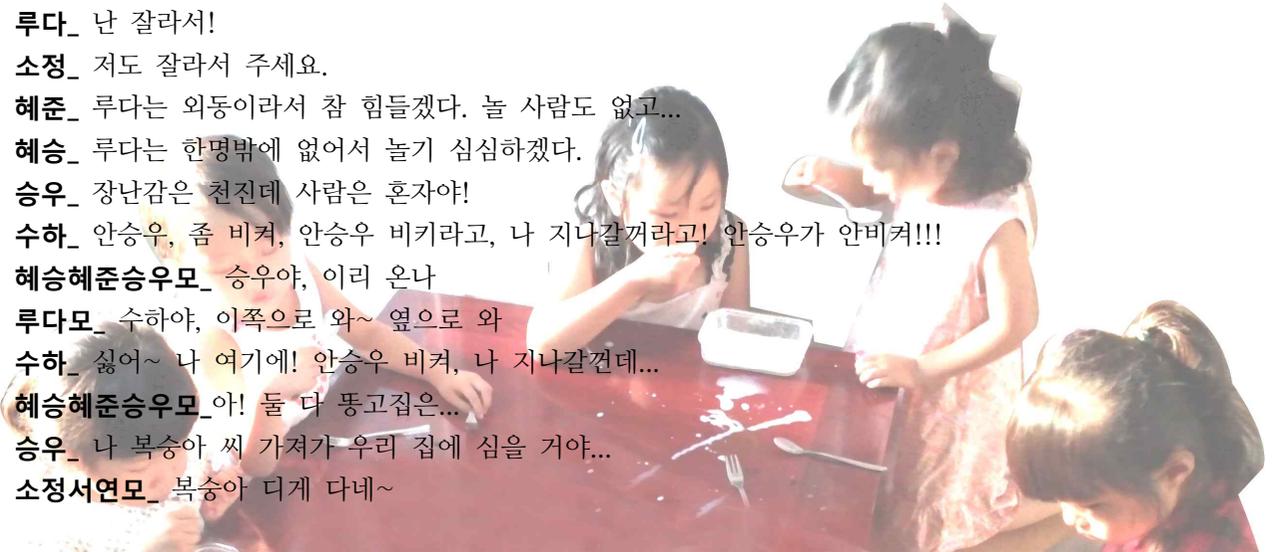
루다모_ 수하야, 이쪽으로 와~ 옆으로 와

수하_ 싫어~ 나 여기에! 안승우 비켜, 나 지나갈건데...

혜승혜준승우모_아! 둘 다 똥고집은...

승우_ 나 복숭아 씨 가져가 우리 집에 심을 거야...

소정서연모_ 복숭아 디게 다네~



(πππ 이 와중에 나머지 똥강아지들은 와작와작! · 장난감은 계속 빵빵빵 빵빵빵~)

혜승혜준승우모_ 결론은 해바라기는 돈 아깝다 하는 놈은 없으니! 학교는 이렇게 느끼는 놈도 있고, 저렇게 느끼는 놈도 있지만. 사실 그 만한 곳이 없잖아. 예전에 골목에서 놀았던 것들을 이제는 못하니까 거기서 다 풀고 있으니까... 터전 열린마루 13일날 하잖아. 영구터전! 한번 생각해 봐야 해~

끈적끈적 애들 땀내와 장난감들이 총출동되면서 폴폴 날리는 먼지들, 종알종알, 사소한 언쟁, 다툼들... 루다랑 둘이 있었으면 만들어지지 않았을 살아있는 에너지들. 끊이지 않던 수다다다다!ㅎㅎㅎ 더구나 갓 만든 물김치를 맛있다 평가해주고 애들이 생각보다 밥을 너무 잘 먹어줘 더 기분 좋았던 유쾌한 하루였다.(우리의 유쾌한 수다를 소식지에 실어도 좋다고 OK! 해준 물방울, 별똥별 고마워요~!)

민들레모임, 나와랏!

권미전 해바라기 김채환 엄마

- ▶언제: 2013년 7월 8일 늦은 8시
- ▶어디: 해바라기 방과후
- ▶누구: 민들레에 관심있는 누구나 가능

▶민들레? 격월간 발행되는 민들레는 ‘스스로 서서 서로를 살리는 교육’을 향해 나아갑니다. 아이와 부모와 교사가, 이웃과 동네와 사회가 서로 어울려 걸어가는 삶이 곧 교육임을 잊지 않고, 더불어 성장하는 배움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새로운 교육의 길목에서 오늘도 민들레가 피어납니다. -본문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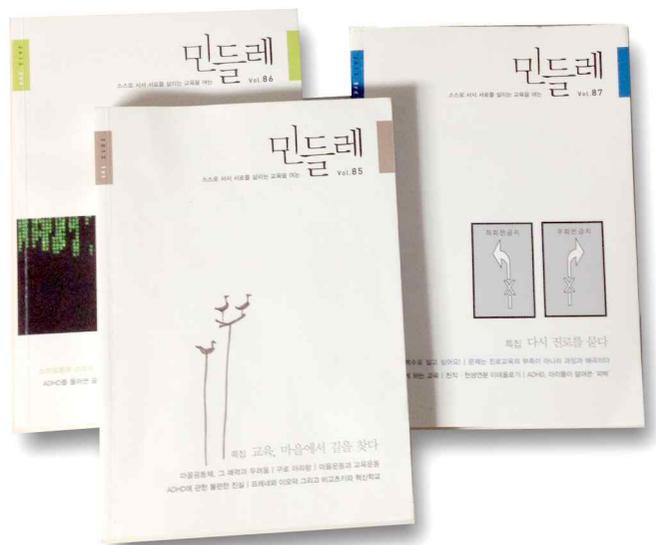
- ▶7월 민들레 모임 주제 : 다시 진로를 묻는다.
(궁금하신 분은 읽어보시길... 방과후에 있어요)

(늦은 8시 낮익은 아이들과 엄마들이 하나 둘씩 모여 든다 자유롭게 편한 분위기에 아줌마들에 수гада 이어지고... 누군가..)

- 이제 시작 할까요? 기억에 남는 부분 하나씩 말할까?
- 나는 우찌다 타츠루에 한 대목 ‘천직, 천생연분 이데올로기와 타자와의 공생’ 내가 마음에 든 것은 뒷부분이 마음에 들었어요.
- 몇 쪽?
- 82쪽
- 그럼 한글을 읽지 말고 각자가 좋았던 글을 이야기 할까요? 한글을 짝 읽을까요?

(또 다른 옆에 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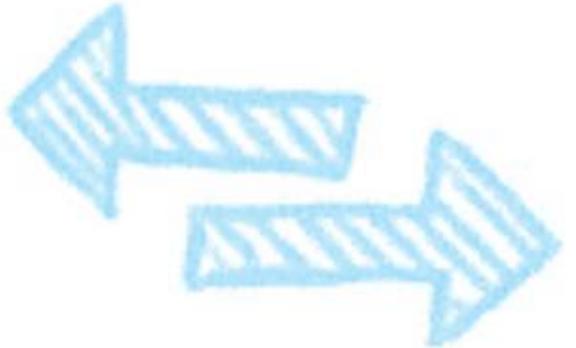
- 안 읽었구나?
- 이때 읽으려고... ㅎㅎ
- 난 조앤 롤링 글이 좋았어..
- 하버드에서 강연한 거 말이지..



- 나두, 나도 좋았어.., 이거 길다
- 그럼 다 읽지 말고 실패 부분은 빼고 상상이부분만 읽을 까요 일단 읽을 거 정해 놓고 ..
- 읽은 사람이 이야기해..
- 김겸 선생(그림 그리기와 진로 찾기)에 강의를 두 번 들었는데.... 피아노로 읽는 미술사이야기가 대개 좋았는데 그 것이 자신에 아이가 대안초등 다니는데 아이를 위해서 만들게 되었다는 것, 마지막 부분에 자신에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 단락에... 어찌면 아버지는 나의 무의식 어딘가에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끊임없이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살아 있는 예술 작품일지도 모르겠다. 누가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말하는가... 그리고 삶이란 열심히 그리다가 이상하다 싶으면 지우고 고쳐가며 살면 된다는...
- 진로라는 게 참...
- 제목이 '의사부인 만나서 백수로 살고 싶어요!ㅋㅋ'
- 중학교에 진로수업이 들어 왔잖아요. 올해 한번에 진로 수업을 해요 진로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한 시간을 다른 것도 하면서 진로 담당 하시는 선생님이 진로관련 자료를 만들어 주셔서 하는데 애들은 노는 시간으로 생각하지.. 진로길 적성 찾기 적성 알아보기 힘들어요... 애들은 한테는 하나도 안와 닿아요. 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현장에 애들을 데리고 나가서 볼 수 있는 것... 느껴야 하잖아요. 막연해요 적성 취미 책으로만 아는.. 테스트로는 약해.. 아이들에게 말로 안내 밖에 못하는 상황이...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어떻게 갈지 모르겠는데 다양한 직업세계를 다니며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야기가 깊어가며...)

- 진로교육이 따로 있을 것 같지 않고 초.중.고에 교육을 세상에 있는 여러분야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배워가는 것 자연 음악 미술 다양함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 이라고 생각해요
- 우리는 진로교육을 따로 받았어요? 진로교육 안 받았잖아?
- 실제 고등학교 때 받은 마지막 원서쓰기... 그건 성적에 맞춘 관련과 상담이였고....
- 진로교육 직업은 세상에 다양한 직업세계가 있다 직업세계에 정보만 가르쳐 주고 심리검사와 다양한 것도 있지만 정말 깊이 있게 자기를 돌아보는 것은 적다 진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로교육이 아니라 아이가 가장 힘든 일이 닦혔을 때 정신 차리고 내가 해쳐 나갈 수 있다는 그런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닐까? 직업은 끊임없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 난 두리뭉실한 이런 거 좋다.



(자기 집 아이들이 이야기들이 오고 가며...)

(터전이야기... 집 이야기...)

(깊은 이야기 낮은 이야기 다양한 색깔에 이야기... 궁금하신분 참석하세요)

(중간.. 중간..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분명하고 뚜렷한 학창시절을 보내 셧나요?

- 전혀 그런 거 없었죠. ㅎㅎ

- 난 대학공부와 직업이 별개다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대학공부는 직업 양성과정이다 내가 너를 키워 보니 너는 특별히 잘하는 게 없더라. 그런데 특별히 못하는 것도 없더라. 내가 봤을 때 너는 교대가 딱이다.'ㅋㅋ

(박장대소!! 그래서 지금은 선생님)

2시간 훌쩍 넘어 시원한 맥주와 간식을 먹으며 뒤풀이를 가졌다.

깊이와 넓이가 느껴지는 아우르는 이야기들이 좋았다. 5살은 엄마는 5살에 맞추어 이야기하고 초등 엄마는 초등에 중등 엄마는 중등에 입장에 나누는 시간!

웬지 틀리다 맞다가 아닌 듣고 나누는 시간... 이야기 없이 듣고만 있어도 남음이 있는 시간... ㅎㅎ
민들레는 그런 모임인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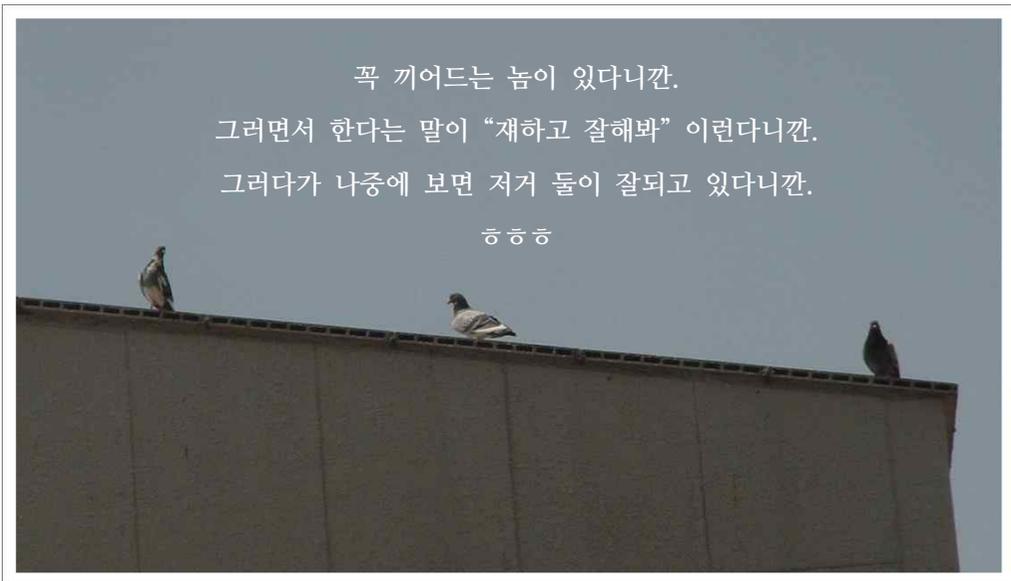
더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짝금 맛배기만 올립니다 (별명도 이름도 없이 그냥 그대로... 참석하신 분은 아시겠죠)

내용보다 그 시간에 나눔이 더 큼으로 직접 참석 해보시길 권합니다.

공동육아는 아이들이 자라고 부모가 자라는 공간이란 것을 다시 한 번 알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연애의 방식



삶과 죽음의 차이



무슨 연유로 거기 말없이 누웠으며
어떤 관계로 거기 한참이나 앉았는가?
오늘, 거기 누웠지만 어제 거기 앉았었고
오늘, 거기 앉았지만 내일 거기 누우리라.

삶과 죽음이 별거냐?
앉고 누움의 간단한 차이인 것을...

"인생이 유한하듯 줌 기능도 한계가 있어 더 당길 수가 없구나."

편지를 마감하며...

•• 짱구(하람부)

복숭밭에서 가지에 붙은 채 궁디부터 단물이 쫄쫄나는 백도를 따다말고 그 단내와 함께 문득 미소가 번집니다. 매번 청탁에 흔쾌히 응해주시고 멋지게 기고해주신 분들 덕분입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조오아~*

•• 토닥토닥(루다모)

오래된 지인께서 우리 조합의 창립멤버였다 놀라운 사실!
참~ 잘 살아야겠다 싶습니다.
이번 호에도 정성스런 글 주신 소중한 분들, 감사합니다!

•• 무궁화(강유채모)

지난 번 민들레모임에서 함께 읽은 인상 깊은 구절을 옮깁니다.
“세상을 바꾸는 데 마법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미 세상을 바꿀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상상할 수 있는 힘을 지녔습니다.” -조앤 롤링-
당신은 상상하고 계신가요?

•• 꽃사슴(현준모)

홍보소위 앓싸 가오리 파이팅!

•• 하트(수하모)

여름이 아무리 뜨거워도 변함없이 소식지는 나갑니다. 이번 달은 정말 한 것도 없이 얌혀 가네요. 반성합니다. 명랑홍보 파이팅 !!^^영월 동강언저리에서 휴가인 수하모^^;

•• 달빛(서준모)

무더운 날씨에 숨이 턱턱!! 엄마~우리 뭐 먹어? 숨이 턱턱!! 대청소 있어요. 숨이 턱턱!! 아무래도 올 여름나기 너무 힘든 거 같아요 ^^;; 다들 아자아자 힘내세요 ^^

•• 작은무지개(채환모)

더운 여름과 4년만에 다녀온 가족휴가, 홍보소위 원고 마감은 온도가 같았음. 퐁퐁~~~더운여름 파이팅!!! ...  + 



월간 '함께 크는 우리 아이' 통권 103호

발행일 2013년 8월 1일

발행 대구공동육아협동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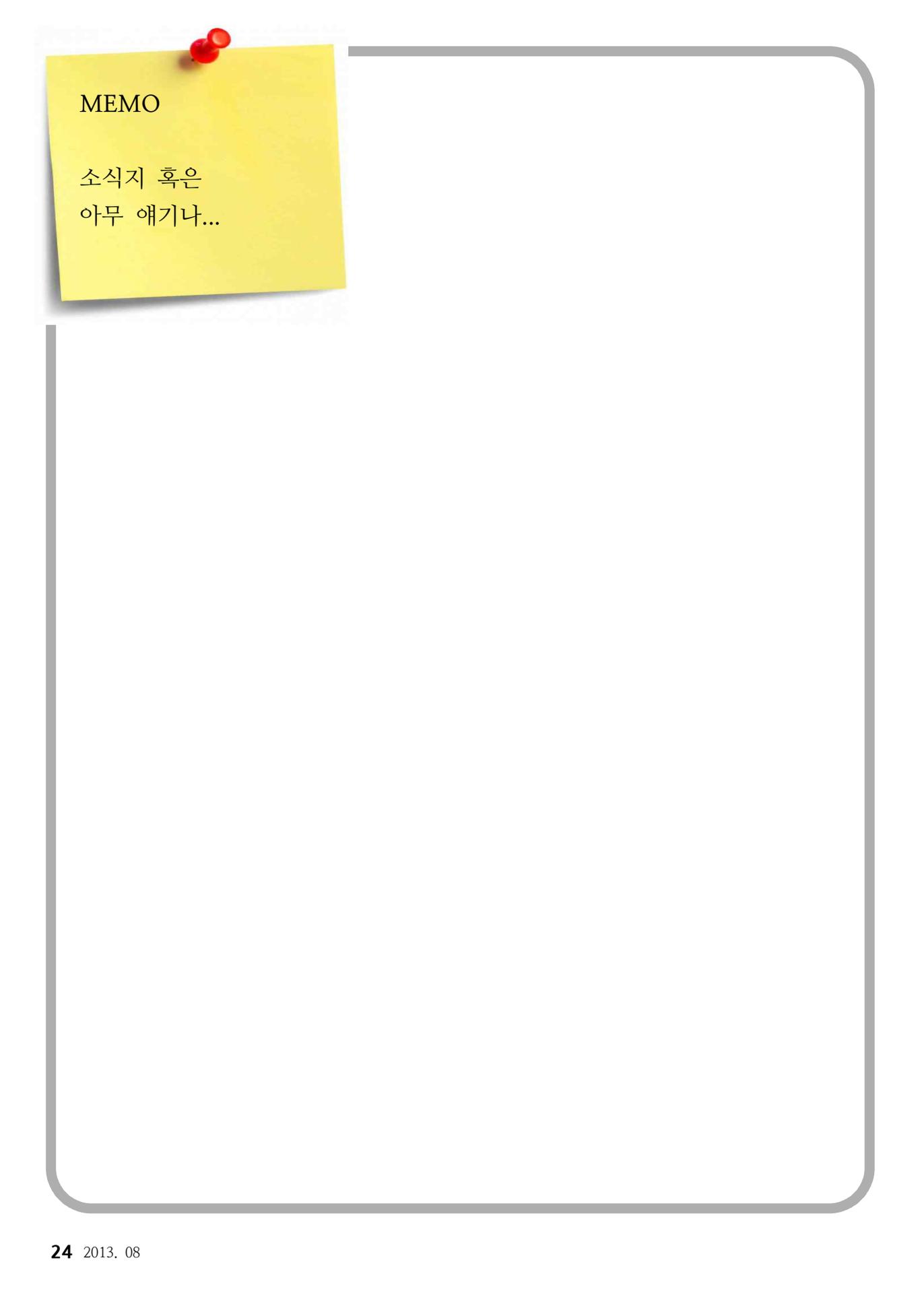
발행인 정범철

편집위원 대구공동육아협동조합 홍보소위

전화 053) 791-6879

주소 (우)706-220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지동 64-6

홈페이지 <http://cafe.gongdong.or.kr/siksikan>



MEMO

소식지 혹은
아무 얘기나...